

표적 효소를 변형하는 대신 그 유사 단백질을 다량으로 만들어 내어 항생 물질과 대신 결합하게 함으로써 고용량의 항생물질에 노출되어도 생존에 중요한 효소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²⁰세균들 사이에서 내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전달됨으로써 내성이 전파되기도 한다. ²¹세균은 염색체와는 별도로 플라스미드라는 작은 고리형 DNA에 유전자를 추가로 가지기도 한다. ²²이 플라스미드를 복제하여 전달하는 것이 내성 유전자 전달의 주요 방법이다. ²³페니실린 내성 세균 B1과 세팔로스포린 내성 세균 B2를 예로 들어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²⁴우선 B1은 내성 유전자가 포함된 플라스미드 전달을 위하여 ㉠ 플라스미드 복제본을 만들고, 접합용 ㉡ ‘선모(線毛)’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다량 합성한다. ²⁵선모가 완성되면 B2와 ㉢ 접합부를 형성하여 B1이 준비한 플라스미드 복제본이 B2 내부로 전달된다. ²⁶이 경우, B2는 두 항생 물질에 대한 내성 유전자가 포함된 플라스미드를 둘 다 가지게 되는데, 이 두 플라스미드가 하나로 결합되기도 한다. ²⁷즉, 둘 중 하나에서 내성 유전자에 해당되는 ㉣ DNA 조각이 분리되고, 다른 쪽 플라스미드의 적절한 부분에서도 고리가 열려, 열린 한쪽 부분에 미리 준비된 ㉤ DNA 조각이 연결된다. ²⁸다른 쪽 끝도 연결되어 다시 고리 모양이 되면 두 항생 물질에 대한 ㉥ 복합 내성을 지닌 플라스미드가 완성된다. ²⁹이 플라스미드는 다시 복제되어 또 다른 세균에게 전달될 수 있다.

³⁰내성 전파에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³¹사용된 항생 물질 일부는 분해되어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 활성을 유지한 채로 주위 환경에 잔류하며, 이 잔류 약물은 내성 세균들을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³²항생 물질이 오남용되는 환경, 실험실 환경, 감염 조직 등에서는 플라스미드 교환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생 물질 내성 정보가 세균들 사이에 쉽게 퍼지게 된다. ³³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러 항생 물질에 모두 저항하는 복합 약물 내성 세균이 출현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MEMO



03 ★★★★★

정답 ②

여기서 ㉠은 기존의 사실주의 입장에서 보는 비판적 진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사실주의는 자연을 충실히 재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새로운 사실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에 입각해서 자연을 재현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주의의 반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 새로운 사실주의도 실재에서 벗어난 재현이 아닌 실재에 충실하기 위해 변형을 하기 때문이다. 실재의 재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사실주의와 새로운 사실주의의 차이가 없다.

④를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실주의의 목적은 작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물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04 ★★★★★

정답 ②

〈보기〉는 언어의 음성 형태는 일반적으로 지시 대상과 관련이 없지만, 일부 단어들은 외계의 현상이나 음향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음성 상징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얇은 물체가 바람에 날리어 자꾸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이라는 뜻의 '나풀나풀'이 가장 적합하다.

독해연습 5 1. 인문 · 이기주의

page. 88

**해설 전면 교체 및 수정되었습니다.

주장과 반박 형태의 정석적인 지문 구성과 전형적인 문항 출제를 보여주는 지문이다. 지문은 크게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지지와 반박(2~3문단), 윤리적 이기주의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4~7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문의 두 가지 큰 덩어리에 대해서 2번과 3번 문항에서 비판·반박·평가의 문제 유형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체크하고 있다. 모든 주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전제가 중요하다. 어떤 주장의 타당성은 내가 옳다고 강력하게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나 근거의 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장 형태의 지문을 읽어 나갈 때는 주장이 무엇인가에도 주목하지만, 그 주장이 바탕하고서 있는 전제·근거에 항상 주목해야 하고 문제도 이 지점을 내용일지나 비판·반박·평가 등의 문제 유형으로 묻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화법에서 토론·토의 등의 주장과 관계된 말하기 방법도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한편 1번 문항은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의 이항대립적 요소를 묻고 있다. 기본적인 글쓰기 방식과 출제 요소에 충실하게 구성된 깔끔한 SET이다. 경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지문을 장악하고 문항을 깨부수었기를(혹은 꾸준히 나아가고 있기를^^) 바란다.

01 ★★★★★

정답 ⑤

- ① 5번 문장을 보면 심리적 이기주의는 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욕구와 당위성 사이의 갈등이 있을 리가 없다. 선지 ①은 12번 문장의 내용인데, 이는 심리적 이기주의 논증의 결함을 지적한 부분이다.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할 때도 있'다는 말이 그것인데, 이것은 욕구와 당위성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즉, 이 둘의 갈등을 인정하는 것은 심리적 이기주의 논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판이다.
- ② 17번 문장을 보면, '심리적 이기주의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론이라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라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심리적 이기주의뿐이다.
- ③ 19번 문장을 보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다. 곧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의 만족감, 욕망과 무관하게 이기적 행위를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④, ⑤ 4문단에 나타난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를	자신의 이익을
심리적 이기주의	실제로 하고 있는가	언제나 추구한다
윤리적 이기주의	해야 하는가	추구해야 한다

18번 문장을 보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실제로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든 한 하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규범적 이론이다. 따라서 ④번처럼 윤리적 이기주의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심리적 이기주의는 18번 문장에서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다.

이 문항에서는 '언제나'와 같은 극단의 범주는 100% 출제 항목이므로 주목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문항이 'A는 B와 달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문항에서 깜빡 실수하지 않으려면 A와 B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판단, 즉 생각을 끊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해야 함을 잊지 말자.

02 ★★★★★

정답 ①

- ① 심리적 이기주의는 2~3번 문장처럼 이타적 행위란 없고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5번 문장을 보면 자신이 가장 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동기도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①은 이런 심리적 이기주의의 논증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심리적 이기주의의 이러한 생각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①의 입장에서는 타인을 돕는 행위와 그 동기 모두에 대해 이타적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 동기와 행위를 나누어 동기만 이타적이고 행위는 이기적이라는 주장을 할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비판·반박의 방법은 첫째 주장 자체를 공격하거나, 둘째 주장의 근거나 전제를 공격하는 것인데, 선지 ①은 첫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주장 자체를 뒤집어서 공격하는 단순한 형태이다.
- ② 6번 문장을 보면 심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논증에서는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므로 타인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①처럼 심리적 이기주의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번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③, ④, ⑤ ①은 심리적 이기주의의 논증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2문단의 심리적 이기주의 지지한 논증에 대해 3문단에서 (10~12번) & (13~16번)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한다.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중요하데, 반박은 주장 자체를 공격하기 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전제를 공격하는

경우가 더 많다. ③, ④, ⑤가 이에 해당한다. ③은 12번 문장, ④는 14번 문장, ⑤는 15번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

정답 ①

문항은 윤리적 이기주의자의 입장에서 글쓴이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길 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번, 비판·반박의 문제 유형은 첫째, 주장 그 자체를 뒤집거나 둘째,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전제나 근거를 공격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글쓴이는 4문단에서 윤리적 이기주의의 주장에 대해 소개하고, 5~7문단에서 글쓴이는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문제 풀이의 스킬보다는 지문을 읽을 때, 주장에 주목하고 그 주장의 근거와 전제들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나누어 잘 정리했느냐가 관건이었을 것이다.

- ㄱ. (O) ㄱ의 내용은 6문단 31번 문장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글쓴이가 주장했던 내용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타인의 행동(의무)을 막게 되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는 항변(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ㄱ은 가능한 비판이다.
- ㄴ. (O) ㄴ의 내용은 6문단 31번 문장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글쓴이가 주장했던 내용이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하므로 이익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어서 윤리적 이기주의를 수요할 수 없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적절한 윤리 이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ㄴ은 가능한 비판이다.
- ㄷ. (X) ㄷ의 내용 중에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23번 문장에서 보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다른 큰 사람들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ㄷ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윤리적 이기주의자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윤리적 이기주의가 글쓴이를 비판할 때에도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근거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 ㄹ. (X) ㄹ의 내용은 7문단 32번 문장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글쓴이가 주장했던 내용이다. ㄹ은 윤리적 이기주의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그런 대우가 타당하다는 것을 ~ 보여 줄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만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진술로 사실상 글쓴이의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01 ★★★★★

정답 ②

- ① 첫 번째 문단의 '최근까지 ~ 이는 정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정당 수 산정이 정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첫 번째 문단의 '개별 정당 분석이 대의제 아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시민 여론 조직화 · 가치화 기능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한다면'이라는 부분에서 정당의 여론 전달 역할의 평가는 '개별 정당' 분석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당 체계 차원의 '정당 수 산정'과는 거리가 멀다.
- ③ 첫 번째 문단에 의하면 정당 수 산정이 정당 체계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정당 체계의 분석이 정당 간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다고 언급된다.
- ④ 첫 번째 문단에 의하면 정당 수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안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 지표이다. 따라서 정당 수 산정은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의 안정성을 파악하게 해 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 ⑤ 첫 번째 문단의 '정당 수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그 정치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분포 및 정치 상황의 안정도를 보여주는 중요 지표이다.'라는 부분에서 정당 수가 정치 체계의 이념적 분포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

정답 ③

- ① 한 정치 체계의 규정에 따른 정당이면 모두 동일한 자격을 갖춘 정당으로 간주하는 '단순 방식'에 따를 때 정당 수는 선거 전에는 6개이고, 선거 후에는 3개이다.
- ② '이항 분류 방식'에 따른 정당 수는 모두 3개로서 '선거 후 단순 방식'과 동일하다.
- ③ 의회에 의석을 보유하고, 내각 구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만을 정당 체계 내 정당으로 인정하는 '이항 분류 방식'에 의한 정당 수는 3개이다. 반면 '지수화 방식'에 의한 '의회 유효 정당 지수'는 2.78이다. 따라서 '이항 분류 방식'에 의한 정당 수가 '지수화 방식'에 따른 의회 유효 정당 지수보다 크다.
- ④ '지수화 방식'에 따를 때, '의회 유효 정당 지수'는 2.78로서 '선거 유효 정당 지수'인 3.45보다 작다.
- ⑤ '지수화 방식'에 따른 의회 유효정당 지수는 2.78이고, '선거 후 단순 방식'에 따른 정당 수는 3개이므로 양자는 같지 않다.

03 ★★★★★

정답 ①

- ① 지수화 방식은 정당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정당이 생기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기 위함은 아니다.
- ② 네 번째 문단의 '이러한 지수화 방식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정당 체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 정당 체계 비교하기 위해 '지수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네 번째 문단의 '지수화 방식에서는 내각 참여 여부를 막론하고 각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의 상대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부분을 볼 때 지수화 방식은 선거 유효 정당 지수와 의회 유효 지수로 나뉘므로, 선거 정당 체계와 의회 정당 체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지수화 방식은 단순 방식과 이항 분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수화 방식이 보완한 점은 바로 정치 상황이 나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일관된 비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⑤ 이항 분류 방식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 체계와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 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교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수화 방식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

정답 ③

추론 문제 유형이지만, 추론은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문에서 상징적 - 고전적 - 낭만적 단계로 이어지는 예술이 각각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	예술미	정신사
1. 상징적	부조화 (형식이 내용을 압도)	출발	출발
2. 고전적	조화	완성(정점)	상승
3. 낭만적	부조화 (내용이 형식을 압도)	하강	완성(정점)

헤겔은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이행 모델을,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이행 모델을 따른다(5문단). 이러한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이룰 수 있고, 예술미의 차원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해서 정신사적 차원에서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는 선지의 추론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가장 앞 단계의 예술은 상징적 단계의 예술로, 미학적 차원과 정신사적 차원에서 모두 '출발'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의 예술은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가장 뒷단계의 예술은 낭만적 단계의 예술로, 미학적 차원에서 '하강'의 단계이자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완성'의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의 예술은 25번 문장에서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정점이지만 예술미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므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은 정신사적 차원에서 가장 미약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사적 차원에서 '출발' 단계인 상징적 단계의 예술이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예술은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도 '출발' 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인 상징적 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25번 문장에서 낭만적 단계에 와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추한 예술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04 ★★★★★

정답 ⑤

23번 문장을 보면 헤겔의 예술사 구분에 있어 정신사적 차원에서 지성의 정점은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낭만적 단계의 예술로, 4번 문장을 다시 확인해 보면 중세부터의 유럽에 대응된다. 헤겔은 이처럼 낭만적 단계의 예술(중세부터의 유럽)을 지성의 정점에 들어서서 이전의 상징적 단계(태고 오리엔트)와 고전적 단계(고대 그리스)의 예술을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킨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1번 문장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고 하였고, 5번 문장에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논증적 수준이 높다는 선지의 전반부 서술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번 문장에서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질적 사례를 언급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선지 후반부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쪼잔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양면적·이중적인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 1번 문장의 구조를 찬찬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고 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속성을 함께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면적·이중적인 정보는 대체로 세부 정보인 경우가 많으나 100% 출제 항목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 ② 헤겔의 예술론은 미학적 차원과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이행 모델을 통해, 25번 문장에서처럼 '추'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예술사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선지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오히려 헤겔은 정신사적 차원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의 설명을 연계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헤겔에 의한 예술사의 세 단계 시대 구분은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하는데, 이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1문단). 따라서 헤겔은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사적 차원과 종교사적 차원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결론상의 모순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④ 헤겔의 예술론에서 예술사의 시대 구분은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 유럽으로 대표된다.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각각 건축, 조각, 회화·음악·시문학이라는 전형적 장르와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 관

03 ★★★★★

정답 ③

〈보기〉는 항상 지문과의 연관성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선지가 미국과 한국을 구별해서 묻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겹겠지만, 이 문항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아마도 이 단순하고 지겨운 지문의 이항 대립적인 요소를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항대립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

① 미국에서 '당연 위법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5번과 9번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 등의 시장지배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바로 위법하게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가)의 대형 정유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② 한국의 심사방식은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가)는 유가하락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갖지만, 시장의 공급 초과 현상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도 갖는다. 따라서 마지막 문단에서의 연성(軟性) 공동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지의 단서처럼 (가)에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행위는 경쟁 공동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21번 문장에서처럼 대형 정유사들의 공동 행위는 5번 문장의 미국의 방식처럼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분석과 같은 '간단한 입증 방식'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고 하였다. 즉 문항의 핵심은 미국과 한국의 방식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16번 문장에서 당연 위법의 원칙은 미국의 방식이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하였다. '문제'가 나왔다면 '해결'에도 주목해야 한다. 17번과 21번 문장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5번 문장의 미국의 '당연 위법의 원칙'과는 다른 방식의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미국에서 (나)에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7번 문장처럼 거래 제한의 목적이나 의도,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나)에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과잉 경쟁 입찰 경쟁을 막아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므로,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까지 제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들의 행위가 실제로 경쟁 제한의 의도가 없어서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과 별개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장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한번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④ (나)는 프로젝트 수주 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

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의할 때 연성(軟性) 공동 행위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연성 공동행위를 판단할 때는 21번 문장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보다 복잡한 분석을 통한 엄격한 입증 방식을 택하게 되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 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⑤ 한국에서는 17번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자들의 어떤 공동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쟁 제한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한국의 법 실무에서는 (가)와 (나) 모두 공동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01 ★★★★★

정답 ④

- ① 두 번째 문단의 내용 및 그림을 통해 속세포덩어리로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접합체 → 8-세포 → 8-세포 상실배아 → 16-세포 상실배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제시문은 이에 대해 주변 세포나 외부 환경과의 접촉에 아니면 양극성 결정 물질의 분포에 달려있다고 보는 입장을 각각 설명한다.
- ② 네 번째 문단에서 보면, 8-세포 단계에서 세포 내에 고르게 분포했던 물질들이 밀집 과정에서 바깥이나 안쪽 중 한쪽으로 쏠려 분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8-세포 상실배아의 각 세포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이 물질들을 양극성 결정 물질이라고 부르며, 이 물질의 분포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의 세포로 분화된다는 것이 양극성 가설이라고 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의 차이 때문에 분화될 세포의 유형이 다르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속세포덩어리로 분화될 세포의 양극성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 ③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포유류의 경우 접합체의 세포 분열로 형성되는 초기 배반포 단계에서 나중에 태반의 일부가 되는 영양외배엽세포와 그에 둘러싸인 속세포덩어리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 영양외배엽 세포로 분화되는 표층 세포와 속세포덩어리 세포로 분화되는 내부 세포들은 16-세포 상실배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속세포덩어리로 분화된 세포가 최초로 형성되는 시기는 16-세포 상실배아기임을 알 수 있다.
- ④ 속세포덩어리가 될 세포의 수를 결정하는 물질의 종류는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없다. 제시문은 전체적으로 '내부-외부 가설'과 '양극화 가설'을 통해 속세포덩어리로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안에서 영양외배엽 세포가 되는 표층 세포와 속세포덩어리 세포가 되는 내부 세포의 분화와 관련해서는 영양외배엽 세포 형성 물질 CDX2와 다능성-유도 물질인 OCT4의 발현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를 통해 다능성- 물질이나 양극성 세포 물질 등은 속세포덩어리가 될 세포의 를 결정해  질의 종류는 알 수 있어도 속세포덩어리가 될 세포의 를 결정하는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시문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
- ⑤ 5번 문장과 8번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

정답 ⑤

- ① 마지막 문단에서 보면, 16-세포 상실 배아의 내부 세포에서는 OCT4가 CDX2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부 세포에서 CDX2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두 번째 문단에 의하면 8-세포 상실배아의 일부 세포는 보존 분열로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을 형성하는 세포들이 되고, 나머지 세포는 분화 분열로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에 1개, 내부에 1개로 갈려져서 분포함으로써, 16-세포 상실배아는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로 구분되는 모습을 띠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는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이 16-세포 상실배아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주변 세포와의 접촉이 커지면 활성화 된다고 하고 있다. 즉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은 16-세포 상실배아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그 활성화 여부는 '주변 세포와의 접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반드시 '보존 분열에 의해 형성된 세포'에서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다.(이는 다섯 번째 문단에서 16-세포 상실배아기에서는 표층 세포에서 OCT4가 억제되고 내부 세포에서 CDX2가 억제되므로 표층 세포에서보다 내부 세포에서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부분과 세 번째 문단에서 16-세포 상실배아의 내부 세포가 표층 세포보다 주변 세포와의 접촉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언급한 부분을 통해서도 주변 세포와의 접촉에 영향을 받는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의 활성화는 표층 세포보다는 내부 세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존 분열에 의해 형성된 세포, 즉 표층 세포에서는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마지막 문단의 '이는 양극성 물질 중 세포와 바깥 부분에만 있는 물질이 CDX2를 세포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하기 때문이다.'를 통해 표층 세포의 바깥쪽 부분에서 CDX2의 발현을 억제하는 OCT4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표층 세포의 바깥쪽 부분에서가 아니라 내부 세포에서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마지막 문단에서 16-세포 상실배아가 되면 표층 세포에서는 CDX2가 OCT4의 발현을 억제하여 OCT4가 점차 없어지고, 내부 세포에서는 OCT4가 CDX2의 발현을 억제하여 CDX2가 점차 없어진다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 분화된 표층 세포에서는 CDX2 양에 대한 OCT4 양의 비율이 감소하고, 분화된 내부 세포에서는 CDX2 양에 대한 OCT4 양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CDX2 양에 대한 OCT4 양의 비율은 분화 분열에 의해 형성된 내부 세포에서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세 번째 문단의 양극화 가설(8-세포 단계에서 세포 내에 고르게 분포했던 양극성 결정 물질은 밀집 과정에서 바깥이나 안쪽 중 한 쪽으로 쏠려 분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각 세포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성질의 세포로 분화된다.) 및 마지막 문단의 '8-세포 상실배아의 모든 세포에서 OCT4는 고르게 분포하지만,

한 지표를 사용하나 중산층이라는 집단과 동일시하는가 또는 전체 계층 구조 속에서 자신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에 대해서는 10번 문장을 보면, 계층 귀속 의식이라는 단일한 지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다고 명확히 표현하였다.

03 ★★★★★

정답 ④

- ①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 판단에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 증가 원인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증가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마지막 단락 20번 문장에 '다른 한 편으로 중산층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는 주관적 기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③ 중간층·중산층 계층 귀속 의식이 떨어진 것은 맞으나, 객관적 중산층 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중산층의 붕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에서 객관적 중산층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자신을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문의 18번 문장에 따라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특히 1문단 1번 문장에서 중산층의 위기는 중산층 붕괴 문제 뿐 아니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진술하고 객관적 차원의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을 나누어 설명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보기>의 내용으로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파악할 수 있으나 중산층의 붕괴는 확인할 수 없다.
- ④ 마지막 단락의 18번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과 일치한다.
- ⑤ 보기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선지이다. <보기>의 핵심적 중산층이나 주변적 중산층에 비해, 하층의 6%만이 자신을 '중산층'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선지 전반부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간의 괴리 정도가 중산층보다 하층에서 더 크다는 설명이 옳다. 하지만 지문의 후반부에서 중산층보다 하층에서 계층의 불일치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판단을 해 보면, 하층민의 6%는 실질적으로는 하층민이면서도, 자신들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차원과 괴리를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기>를 통해 확인된 하층의 계층 불일치는 6%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층의 나머지 96% 중 몇 %가 자신들을 하층으로 의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하층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 간의 괴리 정도가 중산층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독해연습 7 3. 과학·상전이

page. 136

01 ★★★★★

정답 ④

1문단 5번 문장에서 일반적인 물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의 상전이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한 계의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는 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종류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특정 조건에서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을 첫 번째 문단에서는 상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섯 번째와 마지막 문단에서 사회 현상이 이력 특성을 포함한 상전이의 패턴을 나타낸다고 하므로 제시문의 견해와 부합한다.
- ② 네 번째 문단에서 경제학자인 캠벨과 오머로드가 물리학 이론인 상전이 이론을 적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했으며, 이후 문단들에서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긍정하고 있다.
- ③ 세 번째 문단의 '사회가 수많은 개체들과 그것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물질계와 유사한 구조를 지녔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임의적인 유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결론을 낳을 만한 시도이다.'를 통해 유비적 사고의 타당성이 유비를 통해 연결되는 두 대상의 구조가 서로 유사할 때 강화됨을 추론할 수 있다.
- ⑤ 두 번째 문단에서 직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이력'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력 특성'이라고 언급된다. 이는 하나의 계가 드러내는 특성은 현재 그것을 제약하는 변수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것이 지나는 역사적 경로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많은 물질의 상전이 현상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므로, '이력 특성'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추론할 수 있다.

02 ★★★★★

정답 ③

- ㄱ. (O) 상전이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은 2문단 12번 문장에 의하면, 어는점과 녹는점이 똑같이 0°C인 물이다. 그런데 1문단 5번 문장을 보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물은 어는점 아래에서도 얼지 않고 있는 과냉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상전이에서 이력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인 물은 과냉각 상태의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
- ㄴ. (O) 1~2문단에 의하면, 이력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의 경우 어는점과 녹는점이 같지만, 이력 특성을 갖는 우무의 경우 어는

가능성이 크다. 지문의 내용이 명확해질 때까지 여러번 읽으면서 지문의 흐름을 잡아 보도록 하자. 글의 구조가 우리 생각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쓰였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글을 읽는 모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핫팅이다.

지문 정리

[1문단] 용모의 구조와 세포의 분화 및 복제 과정

[2문단] Wnt 신호전달

- 배아 발생 과정과 성체 세포의 항상성 유지에 작용
- Wnt 분비 세포 주변의 세포들 중 Wnt와 결합하는 'Wnt 수용체' 보유 세포: Wnt 신호전달을 통해 자신의 분열과 분화 조절
- Wnt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 발생
 - Wnt 신호전달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 세포 증식을 촉진하여 암 유발
 - Wnt 신호전달이 비정상적으로 불활성화: 뼈의 형성을 저해하여 골다공증 유발

[3문단] Wnt 분비를 통한 세포의 분화 및 복제 과정

- 세포 내 축적된 β-카테닌이 핵 안을 이동하여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
 - 분화: Wnt 분비 세포의 주변 세포가 Wnt의 자극을 받지 않을 때 GSK3β 활성화 → β-카테닌 인산화 → β-카테닌 분해 → 세포 내 β-카테닌 농도 ↓ (→ 세포 분화)
 - 복제: Wnt 분비 세포의 주변 세포가 Wnt를 인식하여 결합할 때 GSK3β 억제 → β-카테닌 인산화 × → β-카테닌 분해 × → 세포 내 β-카테닌 농도 ↑ (→ 세포 분화)

☞ 인과 관계의 마지막인 세포 분화와 복제는 4문단과 연결지어야 할 수 있는 내용임. 3문단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4문단] 소낭에서의 Wnt 신호전달

- 판네스세포: Wnt 분비, 성체장줄기세포: Wnt 수용체 보유
 - ① 성체장줄기세포가 판네스세포에 가까워질 때
 - : Wnt 인식 · 결합 → 세포 내 β-카테닌 농도 ↑ →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지속적으로 복제하는 유전자 발현 → 성체장줄기세포 복제
 - ② 성체장줄기세포가 판네스세포에서 멀어질 때
 - : Wnt 자극 ↓ → 세포 내 β-카테닌 농도 ↓ →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지속적으로 복제하는 유전자 발현 × → 상피세포로 분화

☞ Wnt 자극과 β-카테닌의 농도라는 두 가지 정보를 통해 3문단과 4문단을 연결지어야 비로소 독해가 완성됨. 학생 수준에서는 처음에 자력으로 파악이 어려웠다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

01 ★★★★★

정답 ④

정답 풀이

1문단 3번 문장에 따르면, 용모는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4번 문장을 통해 이 상피세포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다시 새로운 세포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6번 문장에서는 소낭의 성체장줄기세포가 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문단의 25번 문장에서 이 성체장줄기세포가 분열하며 상피세포로 분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 2번 문장은 용모가 창자 내부의 표면적을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따라서 용모의 개수와 창자 내부의 표면적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 5번 문장에 따르면 성체장줄기세포는 소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체장줄기세포가 분화해 생성된 상피세포가 용모를 채우게 되지만, 성체장줄기세포의 위치는 소낭에서 변하지 않는다.
- ③ 2문단 11번 문장에는 Wnt를 분비하는 세포와 Wnt에 반응하는 세포가 서로 다르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4문단 22번 문장에 따르면 판네스세포가 Wnt를 분비하고, 그 주변의 성체장줄기세포가 Wnt 수용체를 가진다. 그러므로 성체장줄기세포가 Wnt를 분비하는 것이 아니고, 판네스세포가 Wnt를 분비하며 성체장줄기세포는 Wnt에 반응하는 것이다.
- ⑤ 1문단의 3번 문장에서 용모는 상피세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5번 문장에서 이 상피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소낭의 성체장줄기세포가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모를 이루는 상피세포는 용모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소낭의 성체장줄기세포가 분화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02 ★★★★★

정답 ④

정답 풀이

아주 잘 만든 문항이다. 밑줄은 1문단에 있지만,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마지막 단락을 보아야 한다. 글의 내용이 연속성을 가지고 꼬리를 물며 맞달아 연결된다면 비교적 쉬운 지문이 된다. 하지만 이 지문처럼

01 ★★★★★

정답 ②

(가)의 설명 모형은 한마디로 법칙과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이로부터 현상이 연역적으로 설명되거나 유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칙과 초기 조건이 주어져야 하고, 그로부터 현상이 연역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때 '연역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5번 문장에서처럼 개연적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구별개념(이항대립)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 선지 ②에는 공기 중의 수증기는 차가운 유리잔의 표면과 접촉하면 액체로 응결된다는 법칙, 그리고 얼음 물이 든 유리잔의 온도는 주변 공기보다 훨씬 낮다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로부터 얼음물로 가득 찬 유리잔 표면에는 습기가 차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유도되게 된다.

오답피하기

- ① 목이 길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은 법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초기 조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높이 있는 나무잎을 따 먹기 위해서 코끼리처럼 코가 길어질 수도 있고 사슴처럼 다리가 길어질 수도 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연성도 없다.
- ③ 선지 ①과 마찬가지로 법칙과 초기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가미 호흡이나 피부 호흡을 통해서도 산소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필연성도 없다.
- ④ 법칙과 관계가 없고,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유도되지도 않는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일 뿐이다.
- ⑤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 선지를 오답으로 골랐다면, 오늘 집에서 벽을 보고 30분 동안 반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다음에 안 틀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1문단에서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개념과 정의, 특히 첫 단락에서의 개념과 정의의 중요성은 백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적당히 이름만 확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개념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뽑아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둘째로, 5번 문장에서 구별 개념을 통해 연역적의 의미가 개연적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연역적 법칙 포섭 모형'의 개념은 필연적이라는 개념이 빠져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선지 ⑤는 벼락의 발생 원인에 대한 법칙이 있고 공기 중의 물방울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인 먹구름이라는 초기 조건이 있다. 그러나 번개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유도되지 않고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 수준에 머무른다.

02 ★★★★★

정답 ①

- ㄱ. (O) ③는 원인이 주어졌을 때 현상이 발생하면 설명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면 예측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설명과 예측은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며 다만 발생 유무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해야 한다.
- ㄴ. (X) 예측과 설명은 ㄱ에서처럼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발생 유무에서만 차이가 난다.
- ㄷ. (X) ③에서 언급된 '설명'이나 '예측'은 모두 법칙과 초기 조건에서 피설명항이 유도되는 과정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설명항이 초기 조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 순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설명'과 '예측'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 ㄹ. (X) 9번 문장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말하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설명의 핵심 요건은 원인을 통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깃대 높이라는 원인으로부터 그림자의 길이 등의 결과를 연역해 내는 것이지, 그림자의 길이라는 결과로부터 깃대의 높이라는 원인을 설사 알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설명은 연역이지만, 모든 연역이 설명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ㄹ'은 반대로 진술하고 있다.
- ㅁ. (O) 14번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다. 'ㄹ'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01 ★★★★★

정답 ④

- ㄱ. (O) 통치자의 위엄과 달력의 권위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달력에 실수가 있으면 왕위계승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ㄴ. (O) 시간을 신과 관련짓고 특정 달을 불운한 달로 여기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등의 행위에서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ㄷ. (X) 와엩의 기간은 5일로 이루어져 있지만, 10이믹스에서 50이믹스는 5일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이다.
 - ㄹ. (O) 달력을 만드는데 수학과 천문학에는 의존했다. 그러나 시간의 최소 단위를 하루로 보았다. 따라서 하루를 매 시간 단위로 분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02 ★★★★★

정답 ⑤

- ① 출킨의 달의 명칭을 짓는 방식에 따르면 맞음.
- ② 출킨은 13개의 숫자와 신의 이름 20개를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260일이며, 10이믹스에서 13이하로 끝난다. 맞음
- ③ 하야브는(18달×20일)+(1달×5일)이므로 365일 맞음.
- ④ 출킨(260일)과 하야브(365일)가 다시 만나는 주기는 260과 365의 최소공배수이므로 5×73×52로 189800이 맞다.
- ⑤ 1포트가 1월 1일이라면 0세크는 1포트로부터 80일째이므로('소츠'달의 마지막 날), 오늘날의 3월 중 하루이다.

01 ★★★★★

정답 ⑤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선택지의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계산법 B를 통해 계산법 C가 도출되므로, '계산법 B'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법 A	논리 요소만 고려→ 첫째 공과 둘째 공이 모두 검정일 때 셋째 공이 검정일 확률은 $\frac{1}{2}$
계산법 B	경험 요소만 고려→ 첫째 공과 둘째 공이 모두 검정일 때 셋째 공이 검정일 확률은 $\frac{2}{2}$
계산법 C	논리 요소와 경험 요소 모두 고려→ 첫째 공과 둘째 공이 모두 검정일 때 셋째 공이 검정일 확률은 $\frac{1+2}{2+2} = \frac{3}{4}$

- ① 직전에 나온 공은 계산법 B를 변화시키므로(이는 세 번째 문단의 '첫째 공과 둘째 공이 모두 검정일 때, 셋째 공이 검정일 확률은 $\frac{2}{2}$ 이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계산법 C에 따른 확률도 변화된다.
- ② 실제로 검은 공이 나왔는지의 여부에 따라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값은 증감을 반복할 수 있다.
- ③ $\frac{1}{2}$ 에 계산법 B를 분자, 분모끼리 더하므로 특정한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은 0이나 1이 되지 않는다.
- ④ 공을 꺼낸 횟수가 커질 경우 N과 n이 커지므로 1과 2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즉 계산법 B와 비슷해진다.
- ⑤ 검은 공과 하얀 공이 나온 횟수가 같다면 계산법 B에 의할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frac{n}{2n}$ 이고, 이를 계산법 C에 대입하면 $\frac{1+n}{2(1+n)}$ 이므로 새로 꺼낸 공이 검정일 확률은 항상 $\frac{1}{2}$ 이다.



02 ★★☆☆☆

정답 ①

- ㄱ. (O) 항아리에 검은 공과 하얀 공이 똑같이 들어있다면 시행을 반복할수록 검은 공과 하얀 공이 나올 확률은 $\frac{1}{2}$ 에 가까워질 것이므로 세 가지 계산법에서 모두 새로 꺼낼 공이 검정일 확률은 $\frac{1}{2}$ 에 가까워지며 비슷해질 것이다.
- ㄴ. (X) 계산법 C에 따른 확률 $\frac{1+n}{2+m}$ 은 항상 $\frac{n}{2}$ 과 $\frac{1}{2}$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즉, 두 진분수를 분자, 분모끼리 더하여 나온 분수는 두 진분수보다 크거나 두 진분수보다 작을 수 없다. 따라서 계산법 C에 따른 확률 값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  없다.
- ㄷ. (X) ㄴ.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